
믿음, 신실함, 신뢰
:
바울 서신에 나타
난 하나님의 신실
하심

Auckland, NZ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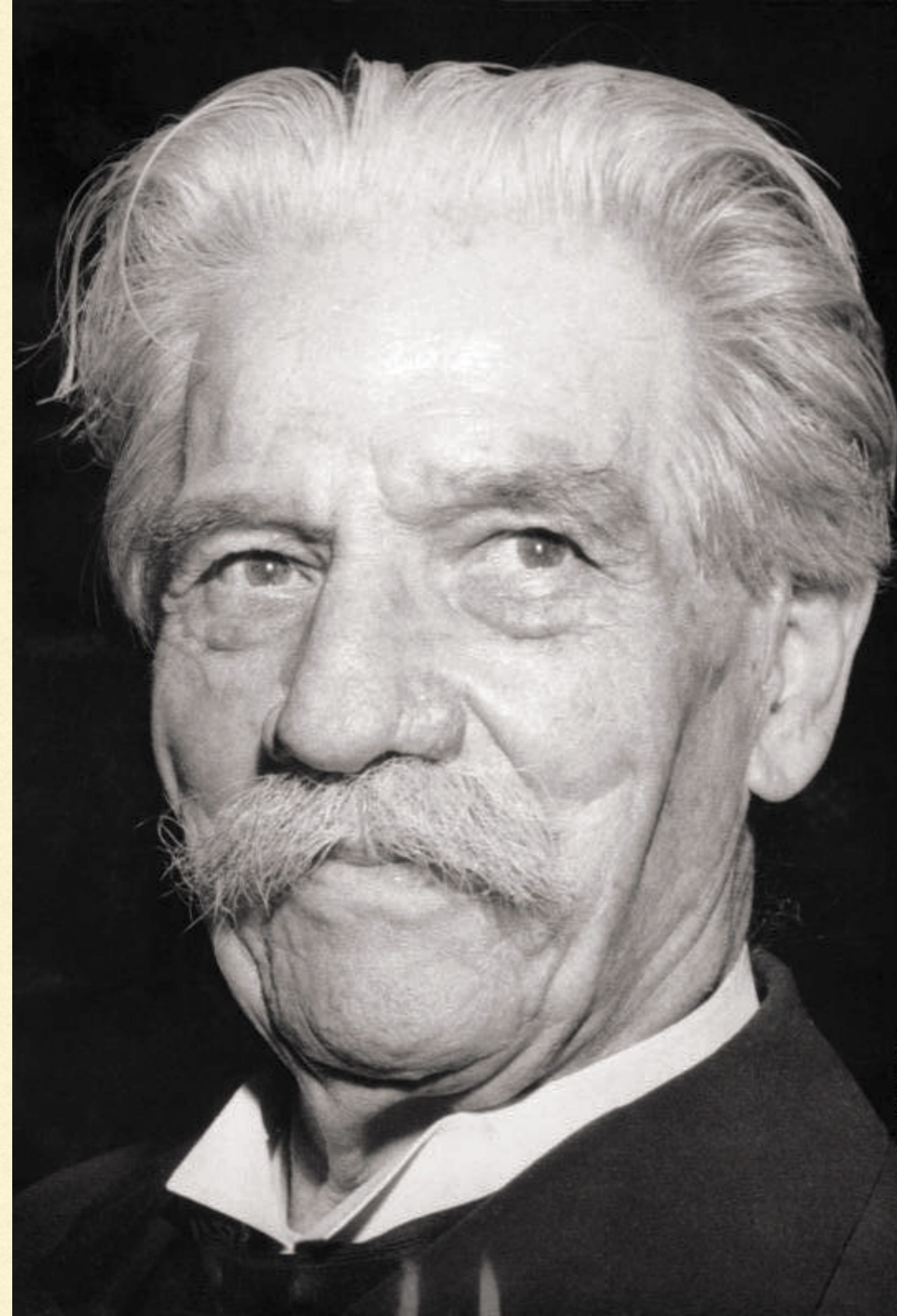
INTRO

- 신뢰: 굳게 믿고 의지함
 - 피스티스(헬), 에무나(히)
 - The Enlightenment → Faith, Believe
 - Trust
 - OT: 'emunâ=pistis=faithfulness
 - 바울: 구약 성경 암기 — pistis, pisteuō—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실함”
-

II. 바울 사상의 중심

- 13개 편지
 - Pistis: 142 times (나머지 신약 101times)
 - pisteuō: 54회
 - Pistos: 33회
-

-
- 믿음을 통해 무엇이?
 - Justification by faith
 - 중심(mitte)?
 - 바울 사상의 중심축(epicenter)
-



ALBERT SCHWEITZER (1875-1965)

- 3 doctorates
 - Missionary, Doctor, Theologian, Organist
 - Geschichte der Leben-Jesu-Forschung, 1906
 - Die Mystik des Apostels Paulus, 1930
-

-
- “Justification by faith” vs “Being in Christ”
 - Participation in Christ
 - Mysticism
 - E.P. Sanders revived the idea.
 -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1977.
-

PARTICIPATION-BEING IN CHRIST

-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연합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전이 되는 것
 -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 연합
 - 하나님의 내재하심(indwelling), 즉 야훼의 거하시는 임재(abiding presence)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내재하심으로 성취
-

-
-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고후 13:5)
-

-
-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갈 2:20)
-

-
-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 1:26-7)
-

- 바울의 확신:

-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koinōnia)를 나눔으로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

- “세례”를 통해

-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갈 3:27)

- 바울은 이 복잡한 과정을 “그리스도 안”(in Christ)이라는 간략한 표현으로 묘사
-

-
-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후 5:17)
 - ὥστε εἴ τις ἐν Χριστῷ, καινὴ κτίσις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 새 창조.
-

-
- “주 안” “주 예수 안” “그리스도 안”: numerous times
 -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장막 임재(tabernacled presence)가 신자 안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하심(indwelling)와 동일
 - 그 이상으로 야훼가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그의 교회와 함께 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성취된 것
 - 바울에게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분이 믿는 자들과 연합되어 그들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형성한 것
-

어떻게?

- 그 연합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갈 2:16-21; 엡 2:8-10)
 -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엡 1:13)
-

믿음

- 하나님과의 구원받는 연합으로 들어가는 방법(a way of entrance)인 동시에 그 안에서 자라는 방법(a way of growth)
 -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갈 5:5-6)
-

-
-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 간 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게 되며(롬 1:17; 갈 3:11),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고후 5:17).
 -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 2:20)
-

III. 누구의 믿음인가?

- 갈 2:20의 번역 문제:
 -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
 - ἐν πίστει... τοῦ υἱοῦ τοῦ θεοῦ(엔 피스테이 투 휘우 투 떼우)로 되어 있으니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 KJV (1611):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 후에 다른 번역들: “by the faith in the Son of God”
-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서 이제 살고 있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더 이상 내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과 희생에서 드러난 신실함(pistis)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힌 후 믿게 된 것이니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 점은 바울의 문구가 분명히 보여 줍니다. 바울은 “나”의 믿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인간(“나”)의 믿음은?

- 갈 2:16: 16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 (ἐπιστεύσαμεν[에피스튜아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먼저—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

왜 바꾸게 되었을까?

- 불편해서?
 - 17세초와 18-19세기의 계몽주의의 영향
 - Faith= intellectual assent
 - “예수의 믿음”은 불편한 표현
 - “예수가 뭘 믿었지? 어떤 교리를 믿었지?”
 - 그러나 pistis나 emuna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신실함”을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음
-

로마서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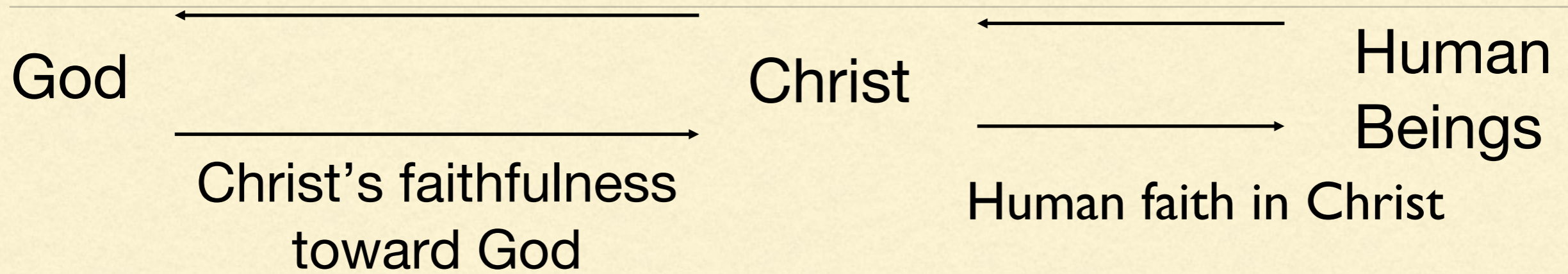
-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함과 같습니다.(IDK)
 - ...에이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

-
- 새번역: “오로지 믿음에서 근거해서 일어납니다.”
 - 인간의 믿음 only?
 -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박국 2:4b)
 - 히: 그의 믿음으로... (의인의 믿음)
 - LXX: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 바울: no pronoun!
 - Why?
-

-
- 믿음의 근원과 목적
 -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인간으로
 - 롬 1:17 — 3:3 — 3:22, 26 — 4:16
-

결론: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

-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
 -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들어감을 의미
 -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포함하는 더 큰 그림
 -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며 이것을 죄에 사로잡힌 인간 안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될 수 없다.
 - 믿음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뜻밖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



- He does God's will (obedience): *pistos* toward God
- He loves human beings (love): *pistos* toward human beings
- God trusts Christ to carry out his will, and the faithful trust him to enable them to become *dikaioi*.
- Christ is therefore at the centre of a nexus of divine-human *pistis*.
- His *pistis* is simultaneously his faithfulness or trustworthiness towards both God and humanity, and his trustiness by both God and humanity.